K-제약·바이오, '전주기 통합 생태계'로 글로벌 정조준

바이오 코리아 2026 개막

신약 개발·임상·투자 등 전 과정
빅파마들, '중간 근육' 부족 지적
데이터 대응 능력·신뢰 확보 필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26' 개회식에서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왼쪽에서 열 한번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왼쪽에서 열 두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역량으로 '통합 생태계 조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과 공간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기업 스스로 임상·투자·생산·글로벌 사업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 클러스터의 필요성이 커졌다. 제약·바이오 혁신 과정에서 고질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연구와 사업화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28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바이오 코리아 2026'이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혁신과 돌파, 더 나은 미래로'를 주제로 열려 K제약·바이오의 체질 개선을 예고한다.

개막날 첫 세션이 던진 화두는 '민간 주도형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차바이오그룹은 올해 4분기 경기 판교에 선보일 예정인 'K-Bio CIC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K바이오 미래를 제시했다. 초기 R&D부터 임상까지 연구 환경을 유연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연구자, 창업가, 투자자, 대기업이 상시 교류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바이오그룹 허영진 실장은 "이제는 글로벌 상업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미국 케임브리지 혁신센터(CIC) 운영 노하우를 적극 도입해, 입주와 동시에 독립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자, 빅파마 등과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CIC는 미국 보스턴, 독일 베를린, 일본 도쿄 등 전 세계 10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연계하며 바이오 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 베링거인겔하임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조언들도 이어졌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파마 간 협력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한계가 지적됐다. 한국노바티스 김원필 전무는 "한국은 초기 시드 펀딩은 활발하지만 임상과 상업화 사이에서 '중간 근육'이 부족하다"며 "빅파마는 '데이터가 잘 나올 것 같다'는 정황적 설명이 아니라 실험 결과, 독성 수치 등을 원한다. K-Bio CIC와 같은 플랫폼이 실험과 검증을 체계적으로 이뤄내는 '품질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내 기업이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한 진단에서도 데이터 기반 신뢰가 강조됐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정현 전무는 "전문적인 데이터 대응 능력을 갖춘 생태계 안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며 "빅파마가 찾는 타깃과 스타트업의 개발 단계가 완벽하게 맞을 때 빅 딜이 성사된다"고 밝혔다.

한국이 아시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간 경계를 허문 '한·중·일 협의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바이오그룹 양은영 사업총괄 부사장은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임상, 생산, 제조, 중국의 개념 증명(POC), 일본의 기초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등 아시아가 한 팀이 된다면 거대 질환 시장과 환자를 보유한 아시아가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코리아 2026'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북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협력한다. 전 세계 59개 국가 775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지견을 나눈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환경에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자본과 규제의 한계를 넘어 투자와 사업화 더 나아가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과 산업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간의 연결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바이오코리아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셀트리온 앱토즈마, 日서 퍼스트무버 출시

자가면역질환 시장 공략 강화
포트폴리오 총 4종으로 확대

셀트리온 앱토즈마

셀트리온은 일본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를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앱토즈마는 지난해 9월 일본 후생노동성(MHLW)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한 이후 약 7개월여 만에 출시가 완료됐다. 셀트리온은 허가 당시 류마티스 관절염(RA), 소아기 특발성 관절염(JIA), 캐슬만병(CD),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CRS)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주요 적응증에 대해 승인을 획득했다.

셀트리온 일본 법인은 앱토즈마를 직접 판매할 예정이며, 기존 제품을 통해 축적한 영업 노하우와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조기 안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일본 법인은 앱토즈마 출시 전 열린 '제70회 일본 류마티스학회'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 관련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의 특성을 소개해 의료진의 관심을 높였다.

셀트리온은 일본 자가면역질환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매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램시마'와 '유플라이마'는 일본에서 각각 44%, 19%의 점유율(IQVIA 및 시장 데이터)로 처방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출시된 '스테키마' 역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셀트리온은 4종으로 확대된 자가면역질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활용, 현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3월 일본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한 '옴리클로'는 하반기 현지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램시마SC'도 일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양한 치료 옵션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치료제를 보유할 경우 환자별 치료 상황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환에 대한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앱토즈마 출시로 일본 내 자가면역질환 제품 포트폴리오가 총 4종으로 확대된 만큼, 제품 간 시너지와 사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제품 판매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영업 기반을 활용해 앱토즈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포켓몬과 만난 올리브영, 고객몰이 나선다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 도입

'올리브영X포켓몬'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이 오는 5월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켓몬과 협업한 대규모 행사를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세대와 국경을 아우르는 팬덤을 보유한 글로벌 메가 캐릭터인 포켓몬의 30주년과 가정의 달을 함께 기념한다.

올리브영은 전국 매장을 연계해 하나의 거대한 체험의 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켓몬과 K뷰티를 동시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올리브영N 성수 매장에서 '포켓몬 메가페스타 2026'를 진행한다. 포켓몬 30주년 파티를 주제로 다양한 팝업 공간을 꾸밀 계획이다.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를 도입해 '포켓몬 고 서울 스탬프랠리'도 운영한다. 포켓몬 고 앱을 실행하고 올리브영N 성수 등 해당 매장을 방문해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이와 함께 주요 타운 매장을 포함한 전국 거점 매장 13곳에서는 매장 내 스탬프랠리, 포켓몬 응원 메시지 영수증, 포켓몬 굿즈 증정품 등을 마련한다.

매장 곳곳에 포켓몬 세계관을 적용해 쇼핑의 재미를 더한 것도 특징이다. 올리브영을 상징하는 올리브와 닮은 포켓몬 '미니브'를 활용했다. /이청하 기자

지엔티파마, 넬로넴다즈 글로벌 임상 가속

中 휘유와 뇌졸중 치료제 생산

지엔티파마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

지엔티파마는 중국 쓰촨 휘유 제약(Huiyu Pharmaceutical)과 뇌졸중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넬로넴다즈 동결건조 주사제'의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cGMP)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휘유 제약은 향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다국적 임상 3상(임상명: 'RENEW')에 사용될 넬로넴다즈 동결건조 주사제의 cGMP 생산을 맡게 된다.

지엔티파마는 연내 글로벌 패스트트랙 진입을 위한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등에 넬로넴다즈의 '혁신치료제지정(BTD)' 신청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미 허가를 받은 국내 임상을 연내에 선도적으로 개시하고 해외 임상시험계획(IND) 신청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로 임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 뇌졸중 협회(WSO)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500만 명이 뇌졸중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겪고, 7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여름 야구장 필수템… 마데카 KBO 에디션

동국제약, 쿨링패치 선봬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10개 구단별 '마데카 썸머 향 패치' /동국제약

동국제약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해 '마데카 쿨링패치 롱 KBO 에디션'과 '마데카 썸머 향 패치 KBO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마데카 쿨링패치 롱 KBO 에디션'은 폭염 속 야외 관람 시 활용 가능한 냉각 기능을 갖췄다. 기존 제품보다 대폭 길어져 약 44cm로 설계했다. 목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자외선 차단 원단을 적용해 야외 응원 시 햇빛 노출 부위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준다.

'마데카 쿨링패치 KBO 에디션'은 피부에 직접 닿는 즉시 하이드로겔 시트가 피부 온도를 빠르게 완화해 주는 제품이다. 이마, 팔, 뒷목 등 부착하면 된다. /이청하 기자